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99 홍해작전 8일째 진군중

'99 홍해작전이 8일째 접어들고 있다.

전교인이 참여하는 홍해작전은 매일 새벽 불을 밝히며 승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마6:13)라는 99홍해작전의 주제에 따라 성도들은 산상보훈의 진수를 들으며 일곱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 실행일치의 균형잡힌 삶을 살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바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말씀과 기도의 작전을 펴는 행동강령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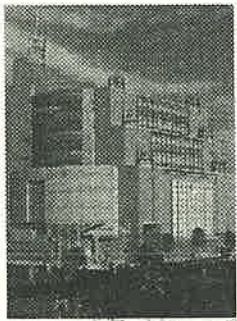
홍해작전의 행진은 26까지 매일 5시부터 특별새벽기도회로 열리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 새 예배당 건축 현장 소식 ●

철골골조공사 9월초 완료 예정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골조 작업을 완성하고 지난 11일 철골제작업체인 서진강구조(충남 제부도) 현장을 방문



14일(월)부터 시작되는 골조 공사를 위해 물품검증을 했다. 이날 이종윤 목사와 건축위원 세 분의 장로가 상상회사 임직원과 감리

와함께 동행했다. 자재 공급의 원활로 공사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진척되므로 지하 3층 지상 8층의 철골골조공사는 9월 초까지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학습·세례식

6월 학습·세례식이 23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 교육은 13일(주일), 세례자 교육은 20일(주일)에 2층 예배실에서 각각 있다. 이에 미참하신 성도는 21일(월)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22일(화)에 있다.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종강감사에배

오늘 찬양예배 시... 총 166명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수료식을 갖는다.

이 수료식에서는 3월에 개강하여 10주간 진행해 온 서울성경대학 느헤미야반(아담반), 야고보서반, 말라기반, 고린도전서반 및 음악교실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종강을 감사하고 수료증을 수여하는 순서를 갖는다.

오늘 수료하는 인원은 총 166명이다. 각 반별 수료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야고보서반

김계순 김혜영 신상훈 이민화 정경옥 정병무 최용걸 최일준 최재춘 하영수 한건석 허인숙 (12명)

● 말라기반

권순단 김계순 김명숙 김선미 김은애 김은희 김영주 고후덕 노영숙 민마리아 방계운 심계을 송두심 서춘식 이관규 이경구 이남성 이민화 이상호 이순영 이은유 이영희 이종심 이점숙 이해순 오충례 유신신 윤찬오 여영숙 조상희 조숙경 조정옥 조철기 전배호 전인화 정병무 정연택 정하자 최광숙 최난수 최일준 최용걸 최영숙 최정숙 최정자 하영수 황유진 김복녀 신용식 허상한 (50명)

● 고린도전서반

김계순 김명숙 김영주 오충례 위성남 이민화 이채봉 이해순 김정희 김예환 정병무 정하자 주경자 차복녀 최용걸 최일준 최재규 하영수 한정아 어상한 허인숙 정해진 이애자 최재춘 신용식 신성춘 (26명)

● 느헤미야반

김계순 김복녀 김선미 김인숙 김은애 김여란 김여주 김재술 나미용 민마리아 박연순 방계운 신순우 심계을 신용식 송두심 서춘식 이규희 이경구 이남북 이남성 이민화 이승민 이승우 이용선 이우상 이점숙 이해순 임훈규 오충례 왕경례 유 신 유을상 윤은식 윤찬오 조상희 조철기 조정옥 정연택 정하자 최난수 최일준 최용걸 최정자 하영수 홍순복 오광환 오형철 신동기 최영순 이성애 이영기 이영숙 이문진 정병무 최광숙 최영준 최형열 홍연홍 이원형 나상민 박두호 이영희1 (63명)

● 음악교실

김인숙 김병호 노문환 박성현 오정수 유을상 윤주현 이동만 이영희 전배호 최근자 최재춘 하영수 한선규 허상한 (15명)

이사야 강해

두로의 멸망

이사야 23장 1 - 14절

두로는 도시국가로서 상업의 중심지이며 항구도시로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두로는 고대 도시국가 가운데 대단히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도시를 가리켜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수 19:29).

그런데 본문의 1절과 14절을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리라"고 합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일반은총을 베푸시듯 두로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1. 두로의 번영

하나님의 은혜로 두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렸습니다(2절). 시돈은 두로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 된 고대도시며 상당한 부를 누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돈보다 두로가 더 부유했다고 했습니다.

두로는 또한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3절). 또한 그 당시 세계라고 알려진 모든 나라들이 두로와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와 같이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된 두로는 환락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로에는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 각종 오락 시설들이 생겨났고 이것들은 두로 사람들을 교만과 안일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남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모든 영광은 두로에게 주어지고 그들은 스스로 면류관을 쓰는 성읍이 되었습니다(8절). 그리고 상인들은 방백 역할을 할 정도로 권위와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2. 두로의 멸망

두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칼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로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적인 환난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망한 것이 아니라 재물로 인하여 환난이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를 포위했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두로의 돈 가진 지도자들은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수로를 이용하여 도망했습니다.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 때 멸망했는데 고대 문서를 보면 알렉산더의 군대가 두로를 포위하고 침략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바다의 신(神)인 포세이돈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로는 우상을 좇아 살던 어리석

님으로부터 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저주도 하십니다(8 - 9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교만해질 때 언제든지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인간을 향하여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말하는 영화를 욕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혼드시는 것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이다...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리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사 23:1 - 14)



이종운 목사

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두로가 멸망한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의 사치와 교만이었습니다(1, 14절).

두로가 망하는데 다시스가 울었습니다. 번영의 도시인 두로에 가면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다시스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두로에 가는 중에 두로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두로에 가던 다시스 사람들은 두로가 망하면 다시 갈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두로의 멸망으로 인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있는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모든 곡식을 두로에 수출을 했고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하니 애굽 사람들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5절).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에게 피난갈 것을 의했습니다(6절). 그러나 두로 사람들은 산이 움직일지라도 자기들의 재산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깃뎀으로 가도 평안이 없고 두로에 남으면 노예가 될 것이니 결국 두로 사람들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12절).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는 백성들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3. 두로가 받은 고통의 원인

두로의 고통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복은 하나

(11절).

갈대아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13절). 그러므로 그들이 두로를 멸망케 했다고 거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피난을 가도 그 곳은 지옥이 될 뿐입니다(12절). 반면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감으로 인생에 실패를 한 것 같으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옥중서신을 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 길을 가는 사람은 좋은 환경을 주어도 오히려 그 환경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데 두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에게 최고의 천연조건과 경제적인 부와 안락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로 피택을 받고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이번생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을 것으로 믿기에 큰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 없는 자를 택하여 주셨으니 소명 이루는 일에 합당한 믿음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6:8)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전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6개월 간의 교육과 훈련 기간은 이 미련한 자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어지는 귀한 기간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내와 열심으로 말씀 공부와 묵상에 진력하여 성경 지식이 가득한 영적 충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 훈련을 통해 기도 생활에 본을 보이는 장로의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앞으로 6개월 간의 훈련기간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넷째,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로 전진하는 전향식(前向式)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은유와 겸손의 인격자요 자제력과 품위를 갖춘 모범적 생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장로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민순규

장로란 교회의 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본을 보여야 함에도 막상 장로 임직을 받으면 안 일해지고 목이 곧아진다든가 겸손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는 16년 전에 장로임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리고 부족하여 목이 곧아진 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었던 저의 목이 몇 번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족한 자에게 다시 금 기회를 주시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울교회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겸손하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소서



윤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 래바논 아름다운 백향목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불탄 포도넝쿨같이 타다 남은 부지깥이와 같은 쓸모없는 죄인을 택하시사 당신의 거룩한 몸되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이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깊은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거룩한 피값으로 이 죄인을 종으로 삼으셨으니 성령으로 채우시사 굵은 것은 퍼시고 모난 것은 다듬어서 당신의 그 크신 겸손과 은유,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나의 나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몸되신 교회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편협한 마음의 지경을 성령의 보습으로 넓혀주사 관용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고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비옵기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종의 종된 소명을 다하게 하사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게 하소서.

함께 올겠습니다



이완형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날 귀가 중인 차 안에서 만일 후보인 남편을 소개하려면 그리 말하겠노라고 아내가 한 말입니다. 욕심도 미련도 없고 소박한 아내가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늘 편

하게 해 주는 호박꽃 - 시골에서 이사온 이래 곧잘 부르는 호칭 - 을 제 책으로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위 분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울러 왜 주님께서서는 허물 많고 어리석은 저를 보배 담는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려 하신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눅6:21)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을 위해 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놓아 울 상대도 없고 영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는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는 신앙의 동지로서 외롭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앙탁드립니다.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임훈규

낮시간을 피한 칠혹같은 밤에 어딘지도 모르는 낮선 곳을 입술자의 지시에 따라 행군하며 논산 신병 훈련소에 입소했던 모든 젊은이들은 '간장과 두려움'을 체험한 그때 그 추억이 있습니다. '창호 피택을 통보받았으나' 하나님께는 감사하오나 '간장과 두려움이 앞세운 것'을 부안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 조교의 지시에 따라 자기를 겸추고 오로지 계획된 목표와 일정을 통해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제대할 때까지 그 자격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전 것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짐합니다. 여섯 달의 교육과정에서 신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순종과 충성으로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해야겠지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갖자 합니다.

이등병이 되어 이 세상 제대할 때까지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제대 신고를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 흥해를 건너며 ●

흥해는 춤을 추고 애굽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영수(장로, '99흥해작전 부참모장)

어느날 갑자기 천사장이 우리 흥해바다한 데 왔습니다. 그러곤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을 지나갈 티이니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여호와의 심판의 밤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날밤은 장엄하고도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동풍이 불어 오는데 천사장도 두려워 떨면서 "이것은 성령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물들은 우리도 모르게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이 순식간에 먼지가 날 정도로 말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창세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이 바다 밑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여자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인원은 이백만 명이 족히 넘었습니다. 이윽고 소가 지나가고 양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짐승의 수가 이천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흰수염을 날리면서 지팡이를 든 노인이 다가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군대사령관인 모세라고 천사장이 귀뜸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장이 우리를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령관을 보았습니다. 아!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앞을 지나간 기쁨과 그들이 구원을 받은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물 속을 지나가면서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세례를 베푸셨

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으로 매우 더러워졌으나 염려 없는 것은 창조 당시 우리에게 복원력을 주셨기에 물이 곧 깨끗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병거를 탄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퇘지가 기세와 살기가 동등했습니다. 그들은 애굽군대이고 마귀사단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 사령관이 손을 갑자기 치켜 들었습니다. 순간 천사장이 우리에게 "전과 같이 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와!하고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온 애굽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후 수천년 간 이런 일은 없었고 하나님의 군대는 타락하여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우리 흥해 바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동방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 매년 한번씩 흥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천사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 흥해와 더불어 만물들은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울교회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흥해를 가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복된 일을 누구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서울교회여! 우리 물들은 얼마든지 더러워져도 좋으니 올해도 지나가시면서 허물과 죄를 씻으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소서.

가족과 친척 이웃 누구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십시오. 가족도 재물도 세세 속을 통과하여 깨끗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모세 사령관에게 주셨듯이 이종윤 사령관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또 죄악된 애굽이 망함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을 것입니다.

■ 동정 ■

- * 이영조 집사(이영자 집사, 2교구)는 교회 건축을 위해 쌍용시멘트 레미콘 250m³(레미콘 트럭 42대분)을 헌납했다.
- * 강민희 집사(시온찬양대 지휘자)는 강대 상용 대형 성경책 1부와 교회 비치용 개역 개정판 성경 50부를 기증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박윤희 집사가정에서 제공했다.
- * 바울 제 1선교회는 14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사 ■

- * 이옥녀 권사, 서초구 방배동 현대빌라로 (☎ 522 - 6760)
- * 남미희 권사, 강북구 수유 1동 쌍용빌라로(☎ 986 - 8364)

탈북자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에 이웃과 함께 참여합시다!

북한을 탈출하여 해매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있을 곳도 없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탈북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설립할 것을 UN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주위 이웃과 함께 적극 참여합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의 승전을 위해
2.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난민청원운동을 위해
3. 서울성경대학에서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